

한국화재보험협회, “풍수재해대책 세미나” 개최



한국화재보험협회는 6월 29일(수)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협회 1층 대강당에서 자연재해 대책활동의 일환으로 학계, 정부 관련기관, 손해보험사, 유관기관 및 풍수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해안 사업장의 관리자 등 2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5 풍수재해대책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연세대 조원철 교수가 진행을 맡았으며, ▲충북대 이승수 교수의 ‘강풍위험평가기법 및 활용방안’, ▲국립방재연구소 심재현 박사의 ‘21세기 여건변화에 따른 호우정책 및 기술개발’, ▲성균관대 정홍주 교수의 ‘풍수해 보험법 및 제도의 운용’, ▲한국화재보험협회 김인태 박사의 ‘사업장의 풍수재해 위험분석 및 대책’에 관한 주제발표로 진행되었다.

한편, 주제발표 이후 소방방재청 방기성 국장, 서울시 이종상 국장, 용인대학교



김태환 교수, 삼성화재 방재연구소 김용달 부장이 지정 토론자로 참석하여 풍수재해 대책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풍수재해로 인한 피해발생 원인과 문제점을 제시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었으며, 세미나 결과를 바탕으로 자연재해 관련 기술력을 확보하는 한편, 30년 이상 축적된 한국화재보험협회의 안전점검 기술력과 시스템을 활용하여 태풍, 해일,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인명 및 재산손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사업장의 위험관리를 더욱 철저하게 하고 있다.